

박홍영: 5단계 phase에 가면 과기3호 운영에서 지구 관측을 위주로 움직이게 된다. 그래서 원하는 만큼의 시간 확보가 힘들 수 있다. 운영의 묘를 잘 살려서 가능한 한 시간을 할당하도록 하겠으나, 그래도 지구 관측에 우선권이 있음을 양해바람.

정웅섭: 2015. 11 이후 계획은?

박홍영: 핵심기술 점검에 3개월 소요 생각하고 있음. 그 이후는 아직 계획된 것이 없음.

민영철: 공간분해능이 1분 정도 된다면, 전파 자료와의 연관성이 아주 크겠다. 그러나 MIRIS 사용을 신청하기 전에, MIRIS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확실한 예제 결과를 하나라도 봤으면 좋겠다. 어떤 관측 대상을 정해서, 그 관측 대상 최상의 자료를 골라서, 여러 가지 성능에 관한 자료가 구체적인 number로 제시됐으면 좋겠다.

정웅섭: MIPAPS 관측 데이터를 다 모아서, 한 케이스에 대해 적용해서 좋은 자료를 만들 수 있겠다. Call for proposal을 내기 전에 그 데이터를 완성해서 공개하는 것을 고려해보는 중.

===== 자문위원 의견 =====

박창범: 관측 프로포잘 공고 낼 때, 한 사람이 얼마나 할 수 있는지 관측량 limit가 얼마쯤인지 꼭 같이 공지해주길 부탁.

정웅섭: satrec에서 5단계 phase 중 EOC에 얼마나 할당할지 알려주면 좋겠다.

박홍영: 아직 이 부분은 fix된 사항 없음.

구본철: 민영철 박사님이 지적한 사항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. 그런 의미에서 Pa-a 데이터에서 별을 잘 빼낸 이미지를 만들어낸 자료를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. 그러나 워낙 pixel size가 크기 때문에 별 빼는 게 쉽지 않을 듯. 혹시 아이디어가 있나?

정웅섭: 컨티뉴 라인 관측 동안 포인팅이 바뀌기 때문에 정확히 매칭이 힘들다. 레졸루션을 손해보더라도 잘 빼는 방향으로 생각해보겠다.

구본철: 관측 시작 1년이 됐는데도 아직 calibration이 제대로 안되는 것은 유감. PI가 필요한 재원이든 사람이든 빨리 확보해서 더 강하게 추진하기 바람. science를 직접 혼자 할 생각보다도 survey 데이터를 빨리 공개하는 게 어떨지? Suvery 페이퍼 하나 내면서 공개하면 많은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을 듯.

한원용: 아직 공개할만한 단계가 아님. 굳이 논문과 함께가 아니라도 필요하다면 공개하는 것도 생각하는 중. 가능한한 빨리 공개할 수 있게 하겠다.

박홍영: 과기3호는 어느 정도 잘 돌고 있다. 그 동안 같이 운영하면서 많이 안정화된 것 같다. 이런 워크샵 같은 기회가 있어서 참 기쁘다.

이형목: 데이터 프로세싱을 하기 위해 어떻게든 몸집을 키워야한다고 생각. 지금이라도 외부 사람들과 협력을 해서 프로세싱 팀을 키워서 일을 진행하자. 기본 논문을 쓸 적에 더 많은 사람이 들어가더라도 외부 인력을 더 활용해서 survey data를 빨리 만들어라. 이걸 봐야 더 연구도 진행하지 않겠나?

이형목: 5단계 phase 이후 관측도 미리 고민이 필요. 예컨대 8개월 오픈 타임 이후에 시간을 많이 소요하는 legacy program을 하는 게 어떤가? 지금부터도 고민을 해야한다. 천문 커뮤니티에 공개해서 앞으로의 계획을 세우자. 목표한 2년 이후 기계적인 불확실

성이 커진다지만, 그런 것을 감수하면서 계획을 세우고 진행할 필요 있다.

윤태석: 천문학회 50주년에서 시기적으로 적절할 것 같으니 특별 세션을 마련하는 게 어떨겠나?

김성은: 여러 흥미로운 science가 가능할 것 같다. 큰 스케일의 structure analysis 등. 우리나라 과기3호로 이루어진 작업이니까, 좀 더 국민 홍보에 신경을 쓰면 좋겠다.

김두환: 천문연은 그간 KVN, GMT 등 여러 대형 사업을 추진해왔다. 이제는 space 차례. 차후 위성 시리즈에서도 KASI가 계속 활동하겠지만, 본인 보기엔 좀 불안. 천문/과학 위성의 입지가 강한가?